

지역 소식통

김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날 보고회는 경제, 복지, 교통, 농업 분야 등 민선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추진 중인 8대 분야 62개 공약사업 중 일부 추진사업 등 10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인구성장시대 개막(5개), △대한민국 대표 농업도시 육성(15개), △어르신 행복도시 조성(4개), △민생경제 지원 기반 구축(5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4개) 등 총 62개 사업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설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가동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이 기간동안 비상상황실을 운영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설 연휴 4일간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김제우석병원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 민음병원은 9일, 12일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소아 청소년을 위한 진료를 실시한다. 공공심야약국인 나은은 누리약국은 매일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문을 열어 시민들의 심야 시간 의료 요구에 대처할 계획이다.

또 명절 당일 김제시보건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진료를 실시하며, 병·의원 39개소, 휴일 지킴이 약국 40개소, 보건진료소 8개소를 지정·운영해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시민 공감 세정 구현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 추진·안정적 재정운용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납세자 중심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행정으로 공감 세정을 구현하고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등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으로 세정 역할을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시민 중심의 납세 편의 시책으로는 무인수납시스템(KIOSK) 도입, 시민 무료상담 마을세무사 제도, 지방세 온라인 수납 및 환급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시민들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세입통합 무인수납시스템(KIOSK)를 도입한다. 무인수납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존에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이용 시 발생하는 납세자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고 민원처리 대기시간 단축으로 민원인 편의성 증대를 꾀한다.

시는 취약계층·영세사업자·전통시

장 상인 등 세무사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 오후3시~4시까지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신설·전입 법인 맞춤형 지방세 컨설팅, 성실·유공납세자 우대 및 지원,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도움창구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설·전입 법인에게 감면규정, 세제 혜택 등 맞춤형 지방세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을세무사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세무상담을 통해 차별화된 세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김제시를 만들고자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기업과 납세자를 선정하고 표창해 납세

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모범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5월 중 유공납세자 시장 표창 및 11월 중 성실납세자 경품 제공을 시행하고 납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특히 체납자 징수 전담팀 및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운영을 통해 2024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민원실 내 도움창구를 운영해 납세자 혼란을 없애고 적극적인 신고를 지원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도모할 계획이며, 올해도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징수 활동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정 시장은 "올 한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납세 편의 시책을 꾸준히 발굴 및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사업비 1,6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설 선물도 하고... 지역경제 살리고..."

설맞이, 기업-농가 상생협력 농특산물 50종 판매 3400만원 매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설을 맞아 지역 기업체에 농특산물 특별할인판매를 실시하며 3,4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일까지 2주 동안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민족 최대 명절인 설 명절맞이 농특산물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동안 지역 기업체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937여개 세트와 3,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했다. 명절맞이 기업-농가 상생협력 농특산물 할인 판매는 관내 기업체를 대상

으로 지역 농특산물 구매를 유도해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고 관내 기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 이미지 향상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농특산물 판매는 사전접수 후 주문 상품을 희망처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판매 상품은 지역 대표 상품인 지평선 쌀을 포함해 사과, 배, 포도 등 과일을 비롯한 참송이 버섯, 표고버섯 등 신선 식품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우수 농특산물 50종을 준비했다.

또한, 시중가보다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다.

상품을 구매한 기업체 관계자는 "명절맞이 농특산물 특별판매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신선한 김제 농특산물을 선물해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런 기회를 통해 기업과 농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설맞이 농특산물 할인판매에 참여해준 관내 기업체 관계자 및 근로자 여러분에 감사드립니다"라며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소비로 힘들었을 농가가 이번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2024년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시행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물가 안정 및 시민들의 부담 감소를 위해 2024년 하수도 사용료를 20% 감면한다.

시는 앞서 지난달 26일 '김제시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에 대한 김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024년 하수도 사용료를 20%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의 지방 공공요금 조정 동향

및 협조사항과 관련해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지방 공공요금인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물가안정 및 시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번 감면으로 시는 하수도를 사용하는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1월 사용료(2024년 2월 고지분)부터 12월 사용료(2025년 1월 고지분)까지 20% 감면된 요금을 부과하며, 감면액은 총 7

억원 정도 예상된다. 특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요금 부과 시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번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과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는 완주군청에서 지역교육 상호 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주-한국폴리텍 대학 전북 캠퍼스 '맞손'

완주서 근로자 재직 교육 시행

완주군과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가 업무협약을 맺고, 완주군에서도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6일 완주군과 한국폴리텍대학 전북 캠퍼스는 완주군청에서 지역교육 상호 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능대학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전북캠퍼스는 김제시에 위치하고 있어 완주군 기업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으로 완주군에서도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해결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교육, 지역산업 혁신, 대학자원 활용 등을 위한 협력 △대학의 교육역량 증진 및 지역 우수인재 양성 협력 △지역 산업단지 기술인력 수급을 위한 교육 훈련 체계 발전방안 협력 △완주군 경제센터 강의장 활용을 통한 완주군 교육 수요에 대한 협력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완주경제센터에서 완주에 소재한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자 교육을 시작하기로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관내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이 성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완주군민의 교육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필리핀 근로자 파견 중단, 완주 '대처 완료'

몽골·태국·캄보디아 도입 국가 확대... 업무협약도 체결

필리핀이 계절근로자 파견을 잠정 중단하면서 전국의 농촌지역 인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완주군은 발 빠른 대처로 인력 문제를 해결했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관내에는 이달 중 필리핀 계절근로자 40명이 추가 입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 지역에서 노동자를 상대로 브로커가 임금을 착취하는 일이 발생하자 필리핀 정부가 한국 파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군은 곧바로 계절근로자 도입 국가를 확대했다. 주요 대상국은 몽골, 태국, 캄보디아 등으로 농업분야 고용주가 선호하는 아시아 국가들이다.

특히, 담당 부서는 몽골 울란바트로 시 날라이호구 관계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실무자간 만남을 추진했다.

현장에서 완주군의 체계적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을 설명해 관계자들을 설득했고, 업무협약까지 이끌어냈다.

이에 몽골의 계절근로자는 고산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에 투입돼 5개월 간 근무하기로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현지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고 방문 면접까지 실시해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다"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국가도 확대해 농촌 인력 부족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완주군에서 일하고 있는 계절근로자는 모두 75명으로, 필리핀 MOU협약 계절근로자 52명과 결혼이민자 4천 이내 가족 초청 프로그램을 통한 23명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Energy saving campaign graphic with text: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and a list of 4 energy-saving tips.